

“대작·대선배·수화 부담감 이겨내고 명장면 연기”

스타인터뷰 영화 ‘신과 함께’ 김동욱

영화 ‘신과 함께-죄와 벌’(감독 김용화, 이하 신과 함께) 열풍이 전국을 들쭉이게 하고 있다. ‘천만 영화’ 입성까지도 머지 않은 가운데, 작품 속 의외의 수화도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.

그 중심에 선 이는 바로 배우 김동욱이다. 극중 주인공 자홍(차태현 분)의 동생 수홍 역으로 등장한 그는 영화 속 강렬한 ‘한 방’을 남기면서 관객들의 호평을 휩쓸어갔다.

최근 인터뷰를 위해 메트로신문과 만난 김동욱은 이 같은 호평 세례에 얼떨떨한 모습이었다. 그는 “(차)태현이 형이 앞에서 드라마를 잘 쌓아놓았다. 저는 그 덕을 본 것뿐”이라며 손사래를 쳤다.

김동욱이 극중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은 초반부를 넘어서부터다. 생전 귀감이 되는 행동으로 저승에서 ‘귀인’ 대접을 받는 형 자홍과 달리, 그는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‘원귀’가 되고 만다.

김동욱은 “찍으면서 끝날 때까지 잘 해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”며 “부담이 엄청 컸던 것도 사실이다. 대작인데 다 쟁쟁한 대선배들과 함께 했고, 1부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돼 부담이 안 됐다고 하면 거짓말”이라고 말했다.

묵직한 부담감을 이겨내기까지 술한 고민이 이어졌다. 그 결과, 김동욱은 ‘신과 함께’의 클라이막스로 꼽히는 명장면을 탄생시켰다. 극중 수홍은 말을 하지 못하는 어머니와 대화를 하기 위해 수화를 사용하는데, 이 장면을 위해 김동욱은 수화를 배우고 디테일을 살리고

CG로 7개 지옥 실감나게 묘사
차태현 동생 ‘수홍’역으로 호평
SF 장르 좋아해 촬영 즐거워
‘수화 연기’ 고민에 잠 못이뤄

자 고군분투 했다는 후문이다.

그는 “수화를 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들었다. 그걸 같이 해야 하니까 그 장면에 대한 부담도 굉장하 컸다”며 “그러면서 감정적으로 공감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촬영 일주일 전부터 거의 잠을 못 잤다”고 회상했다.

“영화에 들어가기 전부터 수화 선생님과 연습했어요. 동영상을 찍어서 계속 집에서 연습하고, 어떻게 하면 최대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소화할 수 있을지 고민했죠. 감독님과도 대화를 많이 했어요. 그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하다보니 나중엔 꿈에 나올 정도였죠.”

압박감을 이겨내고 완성한 장면은 배우 김동욱의 가치를 다시금 발견하게 했다.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드라마 ‘커피프린스’, 영화 ‘국가대표’ 등을 뛰어넘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. 가 됐다고 밝혔다. 두 사람은 영화 ‘국가대표’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.

“감독님이 연락을 주셨을 때 고민할 이유가 없었어요. 영화라는 작업을 계속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분이기에, 출연 제안을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건방진 생각이죠. 그래서 감독님이 전



영화 ‘신과 함께’ 스틸컷. /롯데엔터테인먼트

화 하셨을 때 바로 (출연에) 응했어요. 어떤 역할을 주시든 같이 한다는 사실에 기뻐요.”

‘신과 함께’는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. 캐스팅과 상관 없이 원작을 먼저 읽었던 그는 ‘신과 함께’의 영화화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. “대본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큰 역할이었다”던 김동욱은 8년 전 ‘국가대표’에서 호흡을 맞췄던 하정우의 도움도 컸다고 말했다.

‘신과 함께’는 국내 영화에서 볼 수 없던 화려한 CG(컴퓨터그래픽)로도 주목 받고 있다. 7개 지옥을 실감나게 묘사한 것은 물론, 캐릭터들도 CG를 입고 새롭게 태어났다. 김동욱 역시 그 중 하나다.

분장 아닌 CG를 통해 원귀로 변신했던 그는 “(원귀 모습이) 실물보다 낫더라”는 평으로 웃음을 자아냈다. 그러면서 “평소 판타지, SF 장르를 좋아해서

더 즐거웠다. 판타지라는 장르를 온전히 전면에 내세운다는 건 할리우드에서도 쉽지 않은데, 한국에서 이런 장르의 영화를 만들고 그 시작을 함께 하게 됐다는 게 제겐 굉장한 영광이다”고 말했다.

올 여름 개봉이 확정된 ‘신과 함께’ 2부에 대한 기대도 숨기지 않았다. 이 작품은 1부와 2부를 동시에 제작한 특수한 사례에 속한다. 1부의 성적은 곧 2부의 흥행으로 직결된다. 다행히 1부가 소위 ‘대박’을 치면서 배우, 제작진들도 한 시름 놓은 분위기다.

1부가 자홍의 이야기였다면 2부는 수홍의 이야기다. 1부에서 인생작을 새로 쓴 김동욱은 자신이 중심이 된 2부를 통해 또 한 번 관객을 사로잡을 예정이다.

“2부는 더 재밌을 거예요. 1부에서 다루지 못했던 저승 삼차사 강림, 해원맥, 덕춘의 개인사도 풀어나가고, 성주신, 원 일병, 박 중위 등 이야기도 절묘하게 맞물려 있거든요. 염라에 대한 이야기도 있으니 기대해주세요.”

/김민서 기자 min0812 @metroseoul.co.kr



배우 김동욱 /롯데엔터테인먼트

메트로신문이 직접 편집한 경제뉴스

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메트로신문을 볼 수 있어요!



네이버 뉴스스탠드

“KBO닷컴 만들어 통합마케팅 기초 다질 것”

정운찬 KBO총재, 업무로드맵 발표
조직정비·경기경쟁력 강화 등 모색

정운찬 신임 KBO총재가 재임 3년간 추진할 업무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한국 야구 발전을 위한 포부를 드러냈다.

정 총재는 3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캠프 양재타워에서 열린 KBO 총재 이·취임식에서 올해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연간 로드맵을 공개했다.

이날 취임식에서 정 총재는 KBO 조직정비 및 역량 강화, 제도 개선, 클린 베이스볼의 구체적인 실현, 144경기 경쟁력 강화, 외국인 선수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. KBO리그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찾은 계획이며, 필요할 경



정운찬 한국야구위원회(KBO) 신임 총재가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캠프양재타워에서 열린 KBO 총재 이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. /연합뉴스

우 한국은 물론 메이저리그 전문 연구 기관에 외주 용역도 줄 심산이다.

마케팅 수익 활성화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. 정 총재는 “내년에는 중계권 가치 평가와 합리적으로 평가받는

계약에 초점을 맞춰 마케팅 수익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”고 설명했다.

KBO닷컴 개설은 그 일환이다. 정 총재는 “3년 차인 2020년에는 메이저리그 성공의 바탕이 된 MLB닷컴과 같은 KBO닷컴을 만들어 한국프로야구 통합마케팅이 이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질 것”이라고 선언했다.

사무총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. 정 총재는 “좀 더 시간을 두고 좋은 분을 모시도록 할 예정이며 공모제도 배제하지 않는다”고 말했다.

한편 정 총재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, 2002년 서울대 총장을 거쳐 2009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국무총리를 지냈다. 이후 동반성장위원장으로 역임했다.

/김민서 기자

오늘의 날씨

해돋이 / 07:47 | 해질 / 17:27

1월 4일

음력 : 11월 18일

수도권 날씨

-7 ~ 0°C

운동 지수

빨래 지수

세차 지수

외출 지수

지역별 날씨

- 연천 -12/-1
- 동두천 -10/1
- 가평 -12/1
- 파주 -12/-1
- 서울 -7/0
- 양평 -10/1
- 인천 -7/-1
- 수원 -9/-1
- 용인 -9/-1
- 평택 -9/1
- 백령도 -5/-1

·자료제공 : Kweather 케이웨더(주) www.kweather.co.kr

스포츠 한줄 News

- ▲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가 2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10만명에게 배포한 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과 반다비 이모티콘을 20만명에게 추가로 배포했다.
- ▲ 안양 KGC인삼공사의 센터 오세근(사진)이 3년 만에 프로농구 올스타 팬 투표 1위에 올랐다. 이정현(KCC), 디온테 버튼(DB), 양동근(현대모비스), 리카르도 라틀리프(삼성)가 뒤를 이었다.
- ▲ 프로축구 겨울 이적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베테랑 골잡이 데얀의 수원 삼성 입단 여부가 4일 결정된다. 데얀이 전 체 외국인 선수 고액 연봉 2위에 해당하는 13억4500만원을 받았던 만큼 연봉 협상이 관건이다.
- ▲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·폐회식을 맡게 될 책임자로 윤정섭 한국종합예술학교 명예교수가 위촉됐다.
- ▲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이세돌 9단, 커제 9단이 오는 13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‘2018 해비치 이세돌 vs 커제 바둑대국’을 펼친다.
- ▲ 프로야구 SK 와이번스가 3일부터 내달 2일까지 31일간 미국 IMG 아카데미에서 재활 캠프를 열고 팔꿈치 수술 후 돌아오는 에이스 김광현을 비롯한 선수 5명을 특별관리한다.
- ▲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강원FC가 부산 아이파크에서 뛰던 측면 공격수 정석화를 영입했다. 또 포항 스틸러스는 중앙수비수 하창래를 영입했다.